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성경말씀: 시95:1-11

오늘은 예배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 이기적, 자기 중심적(selfish, self centered)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까에 더 큰 관심, 기복 신앙, 자기 중심적으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 불가능,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행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등 초점

시95-100은 예배에 대한 시편들, 95는 시작이 되는 시편, 예배 초청을 하는 시편으로 알려짐
저자 모름, 여러 사람들의 견해: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중 하나 장막절, 수확한 모든 것을 앞에 두고
과거 자기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 회고, 아마도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망하여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장막절을 위해 기록하였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 >

하나님 앞에 와서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초청(1-5)

1-2절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 함께 와서 기뻐하라(오 오라), 3-5절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제시

1. 시편 기자가 권면하는 예배는 같이 드리는 예배이다. 1, 2절의 우리가(Let us)

예배(worship)의 원래 의미: 가치 있는 분(것)을 가치 있게 대접하는 것(섬기는 것), 돈, 자동차도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일에 한적한 호수에서 예배드린다. 가능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서 공예배 드려야
한다. 신약 성경의 성도들, 주일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예배

2. 함께 드리는 공예배는 소리내어 드리는 예배이다(1, 2절 낭독).

불교도들 조용히 묵상 스타일, 그러나 성경의 공예배는 즐거이 소리치는 것이다(1, 2). 그래서 회중
찬양이 대단히 중요하다. 온 마음과 혼을 다해 주님을 향해 소리를 내야 한다.

3. 그런데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2).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 한 교회 예배 분위기 분위기는 똑 같아 앉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위를 보며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분위기, 록 음악 공연장 분위기와는 다르다. 절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흠모하는 찬양
아이들과 같이 예배, 부모가 장송곡 부르듯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작에는
밝고 경쾌한 찬송, 마치 야구장, 축구장 인기 스타 기뻐서 환호를 지르는 그런 모습

4. 1, 2절의 즐거이 소리치는 것은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 실제로
홍해 사건 이후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주님 찬양(출15:20-21), 사울의 승리, 백성의 환영
엄숙하게 예배드려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엄숙함이 장례식장 분위기, 그레고리안 찬트,
불경 낭독하듯이 되면 공예배를 오해한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삼하6:12-23), 미갈의 업신여김,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심판

5.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거기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경배와 찬양 스타일 No!

3절의 위대하신 하나님, 주들의 주, 왕들의 왕

4-5절의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기가 어려움, 즉 창조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출15:11).

그래서 오늘 오후 회중 찬양 강좌, 바르게 찬양하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야 한다(6-7)

예배의 참된 의미: 납작 엎드리는 것(6), 실제로 불교 부처 앞에서, 이슬람 메카를 향해, 유대인들도
구약 시대 예루살렘을 향해, 과거에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우리는 실제로 엎드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요4:24), 다만 이 심정으
로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이유(7):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 양 떼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므로 예배 안에는 즐겁게 소리 지르는 것과 조용히 무릎 꿇는 것이 다 들어 있다.

즉 창조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의식 속에서 기도, 말씀 선포 시 자세

순종하겠다는 결심(8-11)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지 표명(7절 후반부-8), 요10:27

엄숙한 경고: 그런데 1-5절의 유쾌한 무드에서 8-11로 가면 경고의 두려운 무드

1-7절은 시편 기자의 말, 8-11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시절 40년 광야 유랑, 맛사와 므리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던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7-8), 그 실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선조들 믿음으로 이집트 탈출, 그러나 그들의 다수(모세와 아론도)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9)

맛사와 므리바는 지역 이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개의 사악한 사건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강박하게 함, 맛사의 뜻: 시험, 므리바: 다툼

맛사와 므리바

1. 출17:1-7

바로 며칠 전에 10개의 무서운 재앙 이집트 탈출, 홍해 갈라짐(5-14장), 15장에서는 감사의 노래 마라에 도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 물 치유(15:22-25),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만나를 주심(출16).

17장 르비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툼, 모세의 말: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2),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함(4),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17:7) 모세의 간구(4), 막대기로 호렙의 반석을 치라. 물이 솟아나옴, 백성이 물을 먹음, 이것의 이름을 맛사와 브리바(7), 다투고 시험한 장소(7)

2. 민20:1-13, 여기는 므리바만 언급됨(13), 출17장과 비슷함, 물 부족,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2) 여기보다 이집트가 훨씬 더 좋다(3-4).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함(8), 모세는 화가 나서 백성을 꾸짖고 두 번 내리침 (10), 물이 나와서 백성은 먹었지만 모세와 아론의 불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12)

3. 이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 하나는 르비딤, 다른 하나는 가데스

불평하는 백성: 하나는 막 이집트 탈출한 세대, 다른 하나는 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세대(20:1 미리암이 죽음), 두 번째 경우는 모세와 아론도 심각한 죄를 지음

3. 종합: (a)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일은 시대와 상관 없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 문제이다. (b)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범하는 문제이다. (c) 심각한 심판 초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11)

4. 맛사와 므리바는 끈질기게 성도들을 따라다니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라. 구원 이후에 거의 매일 같이 불평, 강박한 마음(시78:40-41).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과거의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신약시대 성도들: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성화된 삶을 통한 기쁨 상실, 교제 상실,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부부, 부모 자식, 성도들, 사회, 정부, 듣고 순종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경고, 제대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9절이 성도에게 닥친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닥친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사도 바울 고전 10:5, 11, 12

결론

예배의 여러 요소: 즐거움, 무릎 꿇고 나추면서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

시95:7-9절 낭독